



Save the Children

# 2024년 글로벌 인도적지원 사업 결과보고

소말리아 내전으로 가족과 함께  
이주민 캠프로 대피한 순두스(Sundus, 13세)

© Save the Children

세이브더칠드런의 긴급구호 및 인도적지원 사업에 후원해 주시는 후원자님께,  
2024년 글로벌 인도적지원 기금 사용 내역과  
후원자님의 소중한 후원금으로 진행된 지원 결과를 보고드립니다.

## 2024년 글로벌 인도적지원 기금 지원 내역

### 1. 확보

USD 약 **6,594만 달러**

한화 약 969억 2,547만 원

2024년, 세이브더칠드런의 글로벌 인도적지원 규모는  
약 6억 7,124만 달러(한화 약 9,867억 2,730만 원)입니다.  
이 중 30개 회원국이 공동으로 약 6,594만 달러(한화 약 969억 2,547만 원)  
규모의 인도적지원 유연기금(HF)<sup>1</sup>을 조성했으며, 세이브더칠드런 코리아는  
이 유연기금에 약 351만 달러(한화 약 50억 9,193만 원)를 기여했습니다.

### 세이브더칠드런 코리아의 기여금<sup>2</sup>

| 지원일        | 국가명                               | 발생 재난  | USD (\$)  | 한화 (₩)        |
|------------|-----------------------------------|--------|-----------|---------------|
| 2024-03-14 | 팔레스타인                             | 전쟁     | 200,000   | 278,320,000   |
| 2024-03-20 | 글로벌 인도적지원<br>사전확보 자금 <sup>3</sup> | -      | 1,000,000 | 1,470,000,000 |
| 2024-04-18 | 수단                                | 분쟁     | 200,000   | 278,320,000   |
| 2024-04-23 | 아이티                               | 분쟁     | 200,000   | 139,160,000   |
| 2024-05-29 | 아프가니스탄                            | 홍수     | 100,000   | 142,910,000   |
| 2024-05-29 | 파푸아뉴기니                            | 산사태    | 50,000    | 69,580,000    |
| 2024-06-26 | 파키스탄                              | 폭염     | 50,000    | 66,545,000    |
| 2024-06-26 | 방글라데시                             | 폭염     | 50,000    | 66,545,000    |
| 2024-06-26 | 베트남                               | 가뭄, 폭염 | 30,000    | 39,927,000    |
| 2024-09-02 | 수단                                | 분쟁     | 100,000   | 146,660,000   |
| 2024-09-02 | 아이티                               | 분쟁     | 70,000    | 102,662,000   |
| 2024-09-02 | 미얀마                               | 홍수     | 100,000   | 146,660,000   |
| 2024-09-13 | 베트남                               | 태풍     | 50,000    | 73,330,000    |
| 2024-09-30 | 레바논                               | 분쟁     | 100,000   | 146,660,000   |
| 2024-09-30 | 볼리비아                              | 가뭄, 산불 | 30,000    | 43,998,000    |
| 2024-10-09 | 네팔                                | 홍수     | 30,000    | 43,998,000    |
| 2024-11-06 | 시리아                               | 분쟁     | 100,000   | 146,660,000   |
| 2024-11-06 | 수단                                | 분쟁     | 100,000   | 146,660,000   |
| 2024-11-06 | 필리핀                               | 태풍     | 50,000    | 73,330,000    |
| 2024-12-26 | 글로벌 인도적지원<br>사전확보 자금              | -      | 1,000,000 | 1,470,000,000 |
| 합계         |                                   |        | 3,510,000 | 5,091,925,000 |

1 인도적지원 유연기금(Humanitarian Fund): 전 세계에서 진행되는 세이브더칠드런의 인도적지원 활동을 위해 30개 회원국이 공동 조성한 기금으로, 인도적지원 사전확보 자금, 긴급구호 자금, 인도적지원 질적 제고를 위한 자원 등으로 구성

2 글로벌 인도적지원 유연기금은 24년 12월 기준 환율로 표기(USD 1\$=1,470원) 했으며, 세이브더칠드런 코리아 기여금은 송금 당시 환율로 표기

3 글로벌 인도적지원 사전확보 자금: 재난이 발생했을 때 빠르게 효과적으로 재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사전에 미리 확보한 구호자금

## 2. 지원

USD 약 7,346만 달러

한화 약 1,079억 9,254만 원

약 2,382만 명 지원

아동 1,279만 명 포함

2024년에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대응에 가장 많은 기금을 지원했습니다. 이와 함께 아프리카, 중동, 동남아시아 등 다양한 지역에서 발생한 분쟁, 기아 위기, 기후 위기, 전염병, 복합 위기 등으로 고통받는 아동들을 돕기 위해 인도적지원을 이어나갔습니다.

작년 한 해 세이브더칠드런이 가장 많은 기금을 지원한 10개 국가의 재난 유형과 지원 내역을 보고드립니다.

### 2024년 글로벌 인도적지원 기금 지원 TOP 10

| 국가명                  | 발생 재난             | 지원금 <sup>1</sup>                        | 지원받은 사람 수 <sup>2</sup> |
|----------------------|-------------------|-----------------------------------------|------------------------|
| 팔레스타인                | 전쟁                | USD 약 1,540만 달러<br>(한화 약 226억 3,800만 원) | 1,784,112명             |
| 우크라이나                | 전쟁                | USD 약 490만 달러<br>(한화 약 72억 300만 원)      | 1,691,368명             |
| 미얀마                  | 복합 위기             | USD 약 280만 달러<br>(한화 약 41억 1,600만 원)    | 995,705명               |
| 콩고민주공화국              | SCHP <sup>3</sup> | USD 약 270만 달러<br>(한화 약 39억 6,900만 원)    | 1,489,637명             |
| 나이지리아                | SCHP, 기아 위기, 홍수   | USD 약 260만 달러<br>(한화 약 38억 2,200만 원)    | 1,390,401명             |
| 레바논                  | SCHP, 분쟁          | USD 약 250만 달러<br>(한화 약 36억 7,500만 원)    | 1,980,773명             |
| 에티오피아                | 분쟁, 전염병, 기후 위기    | USD 약 240만 달러<br>(한화 약 35억 2,800만 원)    | 2,843,954명             |
| 수단                   | SCHP, 분쟁          | USD 약 230만 달러<br>(한화 약 33억 8,100만 원)    | 1,915,334명             |
| 아이티                  | SCHP, 분쟁          | USD 약 230만 달러<br>(한화 약 33억 8,100만 원)    | 31,570명                |
| 폴란드<br>(우크라이나 전쟁 난민) | 전쟁                | USD 약 230만 달러<br>(한화 약 33억 8,100만 원)    | 38,774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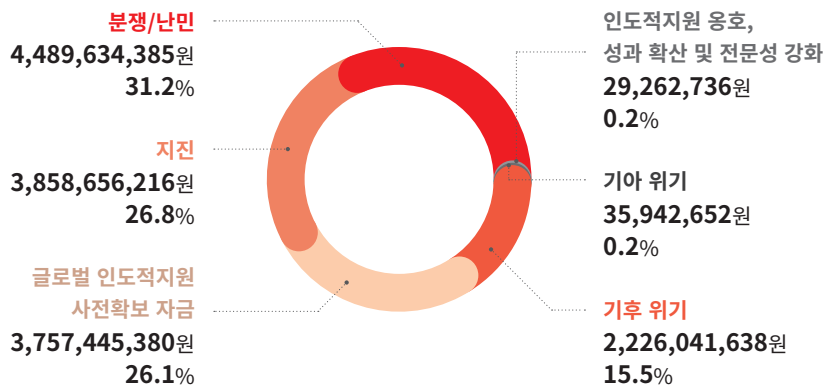
1 환율 표기(USD 1\$=1,470원 기준)

2 지원받은 사람 수: 주요 발생 재난을 포함하여 글로벌 인도적지원 기금으로 해당 국가에서 지원받은 전체 인원 수

3 SCHP(Save the Children Humanitarian Plan): 인도적 대응 계획, 당해 연도 발생하는 다양한 인도적 위기에 즉각 대응하거나 재난 위험 경감을 위한 활동 등에 대한 전략과 계획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는 2024년 한 해 동안 인도적지원 유연기금(HF)을 포함하여, 약 143억 9,698만 원을 지진, 분쟁/난민, 기후 위기, 기아 위기 등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아동을 지원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 2024년 세이브더칠드런 코리아의 인도적지원



| 구분                       | 세부 사업                                                                                                              | 대상 국가                                                              |
|--------------------------|--------------------------------------------------------------------------------------------------------------------|--------------------------------------------------------------------|
| 지진                       | 지진 피해 지역 임시 정착촌 조성 및 이재민 및 아동 대상 생계 및 심리사회적지원 제공                                                                   | 튀르키예                                                               |
| 분쟁/난민                    | 분쟁 피해 아동 및 여성 대상 폭력 예방, 조혼 및 기타 아동보호 위협에 대한 지역사회 인식 개선, 아동친화공간 구축 및 개보수, 아동 대상 심리사회적 지원, 영유아 및 임산부/수유부 대상 영양 지원 제공 | 에티오피아, 부르키나파소, 피지, 방글라데시, 우간다, 팔레스타인, 수단, 아이티, 레바논, 시리아            |
| 기후 위기                    | 가뭄, 폭염, 홍수 등 재난 피해 아동 및 지역사회 대상 아동보호 사례관리, 아동 친화공간 구축 및 개보수, 심리사회적 지원, 생계 지원, 건강 증진 캠페인, 재난 대비 물품 지원 제공            | 에티오피아,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미얀마, 아프가니스탄, 파푸아뉴기니, 파키스탄, 베트남, 볼리비아, 네팔, 필리핀 |
| 기아 위기                    | 식량 구매를 위한 현금 지원, 영유아 수유 및 급식 상담 지원, 보건시설 대상 모성, 영유아 수유·급식 공간 설치, 급성 영양실조 치료 제공                                     | 우간다                                                                |
| 인도적지원 옹호, 성과 확산 및 전문성 강화 | 인도적지원 옹호와 성과 확산 및 전문성 강화                                                                                           | -                                                                  |
| 글로벌 인도적지원 사전확보 자금        | 재난·재해 발생 시 빠르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사전에 확보한 구호자금                                                                            | 다수 국가                                                              |

# 2024년 주요 위기별 인도적지원 내역

후원자님의 소중한 후원금으로 진행된 세이브더칠드런 전체 인도적지원 사업의 2024년 주요 위기별 지원 내역을 상세히 보고드립니다.

## 1. 우크라이나 전쟁

2022년 2월 24일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약 2,500명의 아동을 포함해 약 4만 800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고, 약 686만 명이 난민이 되어 고향을 떠나야 했습니다. 장기화된 전쟁으로 약 190만 명의 아동을 포함해 약 1,270만 명에게 쉼터, 식량, 깨끗한 물 등 기본적인 생존을 위한 인도적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전쟁은 삶의 터전을 모두 무너뜨렸습니다. 약 200만 채의 주택이 손상되거나 파괴됐고, 약 3,800개의 교육 기관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한, 의료 시설에 대한 공격이 약 2,200건 이상 있었고, 이로 인해 약 20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아동들은 가족과 헤어지고 친구들과 관계가 단절되는 등 평범했던 일상이 흔들리며,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마저 잃었습니다. 신체적 피해뿐 아니라 마음에도 깊은 상처를 입은 아이들이 늘고 있으며, 약 150만 명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와 우울증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전쟁 때문에 피난촌으로 이사를 오고 예전처럼 많이 달라졌어요.**

**여긴 제 집이 아니라서 편하지도 않고, 폭발 소리도 들려요.**

**학교도 못 가고 친구들도 다 우크라이나를 떠났어요.”**



우크라이나의 소피아(Sofiya, 13세)

소피아(Sofiya, 13세)가 거주하는 지역 내 전쟁으로 파손된 건물 (좌)

© Sacha Myers / Save the Children

세이브더칠드런의 현금 지원으로 지붕을 수리한 임대 주택 앞에 있는 소피아(Sofiya, 13세)와 할머니 (우)

© Sacha Myers / Save the Children



세이브더칠드런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지금까지 아동 약 147만 명을 포함해 약 380만 명에게 인도적지원을 제공했습니다. 자세한 지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이브더칠드런의 우크라이나 전쟁 대응 주요 활동

### ① 현금 및 바우처

- 254,000명(아동 88,000명 포함) 지원
- 총 63,570,000달러
- 식료품, 의약품, 연료 등 필수품 구입에 사용

### ② 아동보호

- 350,000명(아동 267,000명 포함) 지원
- 아동친화공간 설치 및 아동보호 프로그램 운영
- 심리사회적 지원 키트 배포

### ③ 교육

- 323,000명(아동 300,000명 포함) 지원
- 대피소 내 임시 교실 설립
- 교사와 학생 대상 필수 교육, 학습 및 놀이 자료 지원
- 학교와 가정에서 병행 학습 가능한 모바일 앱 개발

### ④ 보건과 영양

- 보건 서비스: 67,000명(아동 30,000명 포함) 지원
- 영양 서비스: 56,000명(아동 30,500명 포함) 지원

### ⑤ 식량 안보 및 생계

- 472,000명(아동 145,000명 포함) 지원
- 비즈니스 교육 및 보조금 지원
- 18~24세 청소년 대상 직업 교육 진행

### ⑥ 쉼터 및 구호 물품

- 243,000명(아동 172,500명 포함) 지원
- 생필품 구호 키트, 침구, 의류, 위생 용품 등 지원
- 전기 요금 및 난방비 지원
- 주거 환경 개선

### ⑦ 식수 및 위생(WASH)

- 2,600,000명(아동 695,000명 포함) 지원
- 농촌 지역에 급수탑 3개 건설
- 식수 배급, 하수시설 유지 관리를 위한 특수 차량 지원
- 상하수도 시스템용 펌프 30개 이상 지원
- 신생아, 여아, 여성 대상 위생 키트 배포

세이브더칠드런의 현금 지원으로  
임대료와 공과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된  
안나(Anna, 9세)와 엄마 올레나(Olena, 31세)  
© Sacha Myers / Save the Children



## 2. 남아시아 3개국 폭염

2024년, 전 세계가 기록적인 폭염에 시달리면서 기후 위기의 심각성이 다시 한번 부각되었습니다. 특히 기후 변화에 취약한 국가들은 극심한 피해를 입었고, 사회적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일수록 그 여파는 더욱 컸습니다. 이에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은 폭염 피해가 집중된 베트남, 방글라데시, 파키스탄에서 긴급 인도적지원 활동을 전개하며 아동과 지역사회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갔습니다.

### ★ 베트남

지난 2024년 3월 10일부터 시작된 폭염은 베트남 전역을 덮쳤고, 4월 한 달에만 최고 기온 기록이 100회 이상 경신될 만큼 이례적인 더위였습니다. 메콩강 유역의 가뭄과 해수 침투가 심화되면서, 아동 약 14만 명을 포함한 약 29만 명이 물 부족에 시달렸습니다. 이로 인해 지하수 고갈, 농지 황폐화, 수생태계 악화, 농작물 재배량 감소 등의 피해가 이어졌고, 통학용 배편이 중단되면서 아동의 교육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이러한 베트남의 가뭄 및 폭염을 포함한 국가 전역의 인도적 대응을 위해 약 64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또한,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MARD)와 협력하여 폭염 피해 가정이 생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현금을 지원했습니다.

### ● 방글라데시

방글라데시 전역은 2023년부터 지속된 엘니뇨의 영향으로 2024년 4월 23일부터 최고 기온이 섭씨 45도에 육박하는 심각한 폭염에 휩싸였습니다. 통상 1주일가량 지속되던 폭염이 3~4주로 길어지며 전국 모든 학교와 대학에 휴교령이 내려져 약 3,300만 명의 아동과 청소년의 수업이 중단되었습니다. 아동, 임산부 등 건강 취약계층과 빈곤지역 주민들 또한 폭염으로 더욱 큰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이에 세이브더칠드런은 방글라데시에 폭염과 전반적인 인도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약 95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폭염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일기 예보 분석을 진행하고, 냉각 센터를 설립했으며, 건강 증진 메시지를 전파하는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또한 폭염 피해 주민과 아동들에게 모자, 우산, 식수, 물통, 텐트 등 폭염을 대비할 수 있는 물품을 지원했습니다.

방글라데시의 무더위 속, 엄마 룝사나(Roksana, 34세)의 품에 안겨있는 루미(Rumi, 5세)

© Save the Children



## 파키스탄

2024년 5월 21일, 파키스탄 펀잡(Punjab)과 신드(Sindh) 주를 중심으로 전국적인 폭염이 시작됐습니다. 특히 평소 빈곤율, 식량 불안, 영양실조율이 높았던 신드(Sindh) 주에서만 주민 약 2천만 명이 피해를 입었으며, 학령기 아동의 52%가 휴교령으로 교육이 중단됐습니다. 이 외에도 산불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기온 상승으로 빙하가 빠르게 녹으면서 산악 지역은 홍수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복합적인 재난 위협을 겪었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파키스탄의 폭염 피해와 전국 단위의 인도적지원을 위해 약 96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식수 공급 및 위생 지원을 포함해 폭염 대비 물품 키트를 배분했으며, 구급차 6대를 배치해 보건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의료 시설을 위한 의약품과 소모품 비축을 지원하고, 사전 공급 협약을 통해 24시간 내 긴급 대응이 가능하도록 준비했습니다.

### “전보다 훨씬 시원하고 편해졌어요. 친구들과 놀 수 있어서 좋아요!”

- 파키스탄 신드(Sindh) 주에 사는 자인(Zain, 13세)의 이야기

자인이 사는 파키스탄의 신드 주는 기후 변화로 날씨가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자인이 이전에 살던 집은 더위와 습기에 취약해 편안히 머무르기 어려웠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자인과 가족들이 폭염과 홍수 같은 기후 위험에도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기후 친화적인 집을 지원했습니다. 바닥이 높게 설계되어 홍수 피해를 막고, 대나무 지붕은 실내를 시원하게 유지해 줍니다. 자인은 이제 학교를 마치면 집에서 잠시 쉬 뒤, 아동친화공간으로 향합니다. 그곳은 친구들과 함께 놀 수 있는 쉼터이자, 무더위 속에서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안전한 공간입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폭염과 같은 기후 위기로부터 아동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새로 지어진 기후 친화적인 집 밖에서  
수동 펌프를 이용해 세수하는 자인(Zain, 13세) (좌)

© Insiya Syed / Save the Children

아동친화공간에서 폭염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법과 안전 수칙을 배우는 아동들 (우)

© Insiya Syed / Save the Children



### 3. 방글라데시 로HING아 난민

콕스바자르(Cox's Bazar)는 방글라데시에서 가장 빈곤한 지역 중 하나입니다. 2017년부터 이곳에 수용되기 시작한 로HING아 난민들은 여전히 국적이나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 채, 기본적인 권리와 교육, 생계 수단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로HING아 난민 캠프에는 약 100만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 중 절반 이상(약 52%)이 아동입니다.

2024년 한 해에만 약 4만 6천 명이 새롭게 유입되어 난민 캠프 내 과밀과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무장 단체의 활동, 아동 노동, 조혼, 성폭력 등 심각한 아동보호 위기가 만연한 상황입니다. 난민 아동들은 일상 속에서도 끊임없는 위협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들의 권리와 안전은 여전히 보호받지 못한 채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 “이제는 학습 센터에 다니며, 친구들과 놀 수 있어요!”

- 로HING아 난민 캠프에 지내는 카말 호세인(Kamal Hossain, 12세)의 이야기

카말 호세인은 로HING아 난민 캠프에서 부모님과 네 명의 형제와 함께 살고 있는 12세 소년입니다. 장애가 있는 아버지를 대신해 찻집에서 일하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다 보니, 그로 인해 또래처럼 배우거나 놀 기회조차 갖지 못했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카말의 상황을 파악하고, 부모에게 아동보호 교육을 제공했습니다. 또한 식량을 지원하고 어머니가 일자리를 찾도록 도와 가족의 생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그 결과 카말의 부모는 아동 노동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카말을 일상으로 돌려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카말은 이제 학습 센터에 꾸준히 다니며, 아동 클럽에서 생활 기술 교육을 받고 친구들과 함께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로HING아 난민 거주 지역 아동보호 및 회복력 강화 사업의 지원을 받는 카말 호세인(Kamal Hossain, 12세)

© Abdul Momin Mamun / Save the Children



전 세계의 관심에서 점차 멀어지고 있는 콕스바자르(Cox's Bazar)에서는, 잊혀진 재난 속 인도적 위기와 고통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 코리아는 로힝야 난민을 대상으로 2023년부터 2024년까지 2년간 한화 총 13억 원을 투입해 아동보호를 중심으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지역사회의 회복력을 높이기 위한 인도적 지원을 펼쳤습니다. 그 결과 아동 3만 1,814명을 포함한 총 5만 9,151명을 지원했습니다.

### 세이브더칠드런의 주요 지원 활동

- 보호 위기 아동 대상 긴급 사례관리, 아동친화공간 운영, 심리사회적 지원 프로그램 제공 등 아동에게 안전하고 회복력 있는 환경 조성
-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위한 대안 돌봄 가족 발굴, 부모와 보호자 대상 ‘긍정적으로 아이 키우기’ 교육을 통한 가정 내 아동보호 역량 강화
- 텃밭 가꿈 지원, 현금 지원, 직업기술 개발 훈련 등 소득 증대 및 기술 훈련을 통한 공동체 역량 강화
- 아동보호 주민 위원회 활동 지원, 교사 대상 체벌 인식 개선 훈련, 캠페인 및 인식 개선 연극 운영으로 아동보호에 대한 지역사회 감수성 제고
- 현지 정부와의 협력으로 가족사회부 대상 아동보호 역량강화 워크숍 진행, 경찰서 내 아동친화공간 조성, 수감자 자녀를 위한 놀이용품 지원 등 제도적·사회적 환경 개선

아동친화공간 앞 마당에서  
아동보호 주사위 게임을 하는 로힝야 난민 아동들  
© Save the Children



## 4. 글로벌 기아 위기

전 세계 곳곳에서 갈등과 기후 위기,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더 많은 아동이 굶주림의 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전쟁은 가족을 삶의 터전에서 쫓아내고, 농지와 상하수도, 병원 등 필수 인프라를 파괴하며 수천만 명에 달하는 난민의 생존을 위협합니다. 기후 변화로 인한 홍수, 가뭄, 태풍 등은 농작물과 생계를 무너뜨리며, 이로 인해 아동이 충분한 음식을 얻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경제적 혼란으로 식량 가격이 치솟으며 많은 가족이 하루 끼니를 해결하는 일조차 버거운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위기가 겹치며 매년 약 100만 명의 아동이 심각한 영양실조로 목숨을 잃고 있으며, 이는 아동 사망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지금도 5세 미만 아동 4,500만 명이 급성 영양실조 위험에 처해 있으며, 이는 전 세계 5세 미만 아동의 7%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글로벌 기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각 나라의 정부 및 지역 조직과 협력하여 인도적지원 활동을 진행합니다.

### 세이브더칠드런의 주요 지원 활동

- 식량과 필수품 구입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현금 지원
- 영양실조 아동 조기 발견 및 치료 제공
- 영유아 수유 상담 및 정보 제공으로 5세 미만 아동과 어머니의 영양 상태 개선
- 진료소 및 외래 진료를 통한 필수 건강 관리 및 예방접종 제공
- 식수 트럭, 우물 등 안전한 식수와 위생시설 제공
- 학교 급식 운영과 임시 학습 센터 설립으로 학습 기회 보장
- 아동친화공간 운영으로 아동의 심리사회적 회복 지원

세이브더칠드런 진료소에서 전염병 치료를 받고 있는  
나이지리아의 파티마(Fatima, 9세)

© Wasiu Ogungbemi / Save the Children



## 골든타임 72시간 내 아동을 구하는 세이브더칠드런 인도적지원 기금

세이브더칠드런은 언제, 어디서 발생하지 모르는 재난·재해에 대비해 골든타임 72시간 내 아동을 구하고, 인도적 위기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에 인도적지원 기금(The Humanitarian Fund)을 확보합니다.

인도적지원 기금은 세이브더칠드런 코리아를 포함한 전 세계 세이브더칠드런 30개 회원국이 함께 조성하는 기금입니다. 재난·재해가 발생했을 때 누구보다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사전에 모금한 자금과 특정 재난을 위해 모은 자금으로 이루어집니다.

**재난 발생 시, 골든타임 72시간 내 신속한 긴급구호 진행**

**도움이 필요하지만 사람들의 관심이 부족한 재난과 국가 지원**

**재난 발생 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활동 지원**

**현지 파트너 기관들이 인도적지원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역량 강화**

2024년에도 세이브더칠드런은 인도적지원 기금을 통해 장기화된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이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현장과 기후 위기로 폭염 피해가 극심한 남아시아 3개국에 인도적지원을 제공했습니다. 또한, 로힝야 난민과 글로벌 기아 위기와 같이 도움이 필요하지만, 사람들의 관심이 부족한 재난 속에서 여전히 고통받는 아이들을 지원했습니다.

언제나 아동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주시는 후원자님과 함께, 세이브더칠드런은 누구보다 먼저 재난 현장에 도착해 마지막까지 한 아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시는 후원자님의 관심과 후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 보내주신 긴급구호 후원금을 사용할 때마다 72시간 내에 안내 문자(알림톡)를 보내드립니다.  
투명한 후원금 사용 내역을 확인해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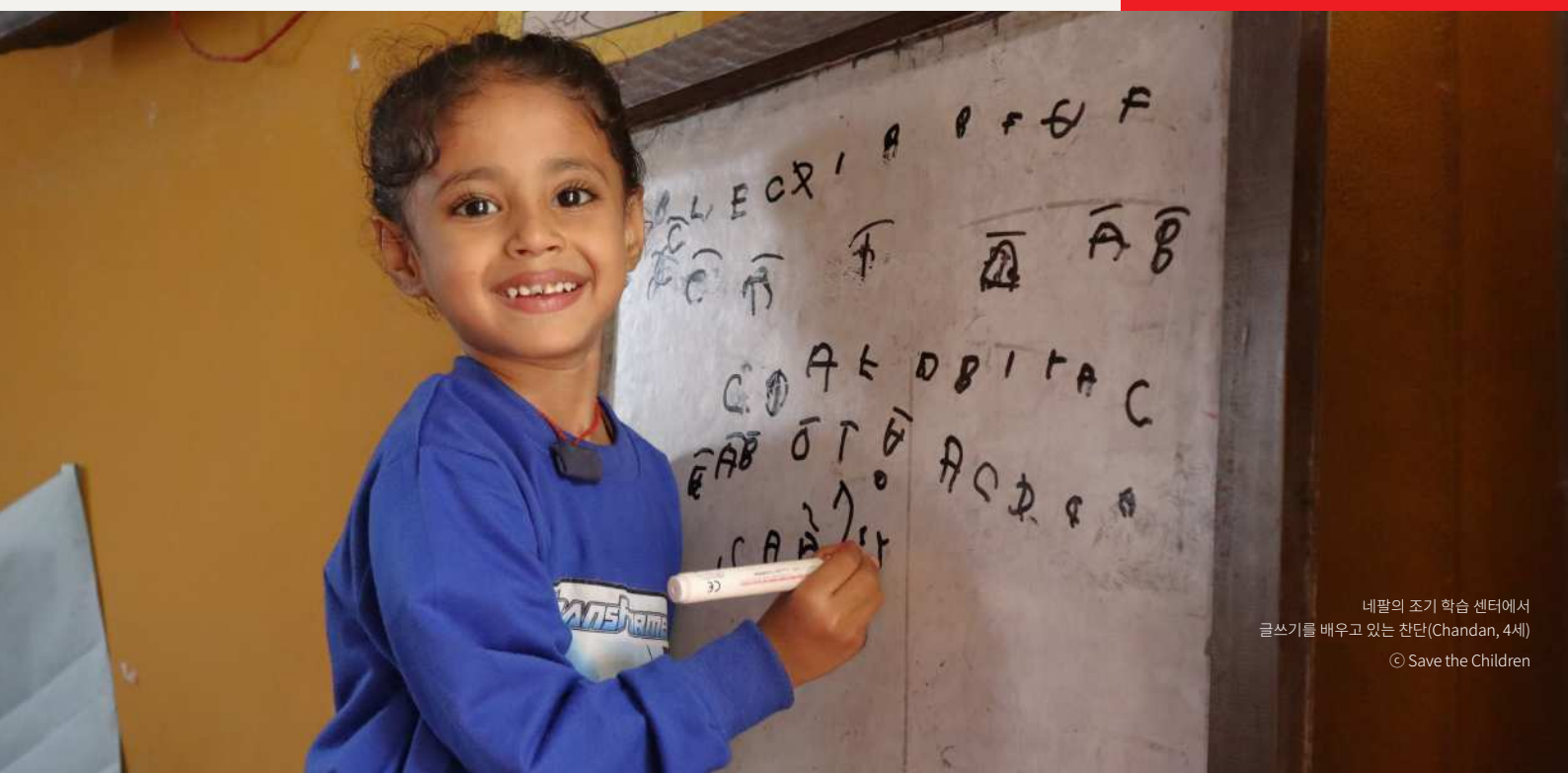
**세이브더칠드런 코리아**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 174  
(우)04080

대표번호  
(02)6900-4400

홈페이지  
[www.sc.or.kr](http://www.sc.or.kr)

 **Save the Children**



## 국제 원조 삭감, 아이들의 삶에 닥친 또 하나의 위기

세이브더칠드런은 지난 100년 동안 전 세계에서 위기 상황에 처한 아동을 구해왔습니다.

후원자와 파트너, 지역 사회와 함께 5세 미만 아동의 사망률을 절반으로 줄이고, 6,800만 건 이상의 아동 조혼을 예방했습니다. 또한, 10명 중 9명에 가까운 아동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재 115개국에서 활동하며, 매년 1억 500만 명이 넘는 아동들을 직접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전 세계적으로 국제 원조 예산이 줄어들면서 인도적지원 사업이 중단되거나 축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동안 세이브더칠드런의 도움을 받아왔거나, 지원을 기다려온 아동들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146개의 인도적지원 사업이 영향을 받았고, 이 중 89개는 완전히 종료됐으며 나머지는 전면 또는 일부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약 1,030만 명이 필수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추가 기금이 지원되지 않는다면,

- 전 세계 479개 아동 의료 시설이 폐쇄될 수 있고
- 5개 영양센터가 운영을 멈추고
- 10만 건 이상의 출산이 열악한 환경 속 이루어지고
- 180만 명의 아동이 학습 기회를 잃고
- 수천 명의 아동이 폭력과 조혼, 트라우마로부터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이번 위기에도 멈추지 않고 늘 그래왔던 것처럼 끝까지 아동의 곁을 지키겠습니다.

국제 원조 삭감으로 도움이 절실한 지금, 아이들을 위한 세이브더칠드런의 활동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지원이 멈추지 않도록,

**긴급구호 후원하기**

긴급구호 후원계좌

하나은행 379-910004-88005  
(예금주: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

영양실조 검사를 받는  
소말리란드의 압디(Abdi, 17개월)  
© Mustafa Saeed / Save the Children